



# “나 홀로 즐겨라” 초소형 SUV ‘베뉴’ 출격

SUV 라인업 막내 모델 완성  
사전 계약대수 3000대 돌파  
DAW 등 첨단사양 대거 탑재  
1473만원~2111만원 책정

현대자동차가 초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베뉴’(VENUE)를 출시하고 내수 시장 공략에 고삐를 쥘다. 현대차는 ‘막내 SUV’ 베뉴 출시로 팰리세이드(대형)-싼타페(중형)-투산(중형)-코나(소형)-베뉴(초소형)에 이르는 SUV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현대차는 1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더 카빙’에서 베뉴 신차 설명회를 열고 사양과 제원 등을 공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 베뉴는 이날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이미 사전 계약대수 3000대를 넘어선 베뉴의 연간 판매 목표는 1만 5000대다.

현대차는 이 차의 주요 고객층을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태어난



이광국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더 카빙에서 신형 SUV ‘베뉴’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밀레니얼 세대’로 정의했다. 혼담·혼술 등 개인의 취향과 만족을 중시하는 1인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모델이라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이광국현대차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은 “베뉴 출시로 현대차는 엔트리에

서 대형까지 SUV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며 “앞서 지난달 인도에서 출시된 베뉴는 해당 세그먼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 뉴욕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베뉴는 견고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며 “혼라이프를 즐기는 동반자로서 베뉴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베뉴는 현재 판매 중인 소형 SUV ‘코나’ 보다 차체가 작은 엔트리급 모델로, 현대차 SUV 라인업의 ‘막내’ 모델이다.

현대차는 베뉴의 강점을 ▲견고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도심주행에 적합한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성능 ▲진보된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 및 편의사양 등으로 소개했다. 또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스트림 G1.6과 스마트스트림 IVT(무단변속기)를 결합해 최고출력 123마력(PS), 최대토크 15.7(kgf·m)를 실현했다. 복합 연비도 동급 최고 수준인 13.7km/L(15인치 타이어, IVT 기준)을 확보했다.

디자인은 전면부에 방향지시등과 LED 주간주행등을 분리 배치하고, 독창적인 격자무늬의 캐스캐이딩 그릴을 적용해 외형에서 베뉴만의 개성을 강조했

다. 후면부에는 간결한 면 구성과 와이드해 보이는 범퍼 디자인으로 세련된 정통 SUV 스타일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베뉴는 고객의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 루프 색상과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투톤 루프를 선택사양으로 추가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안전사양과 카카오의 서버형 음성인식 ‘카카오(아이)’ 등 최신 커넥티비티 사양도 대거 적용됐다.

작지만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한 베뉴를 바라보는 업계 관심도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형 SUV 베뉴 출시를 통해 현대차가 하반기 V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베뉴의 출시와 함께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베뉴 가격은 1473만~2111만원으로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혼다 뉴 HR-V 전측면모습.

## 뛰어난 가성비 ‘생애 첫 차’로 제격



### 혼다 ‘HR-V’

앞자석 하단 연료통 배치로 2열 좌석 공간 활용성 높아  
자전거·유모차도 적재 가능  
부족한 첨단기능은 아쉬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생애 첫 차’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단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다.

혼다코리아가 올해 부분변경 모델로 선보인 HR-V는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특히 경쟁 모델과 비교해 다소 심심하지만 묘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공간활용면에서만큼은 경쟁모델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혼다코리아의 뉴 HR-V의 매력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역을 출발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왕복하는 약 130km코스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 코스는 도심과 고속도로를 적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외관디자인은 프론트 범퍼에 크롬 그릴을 적용했으며 헤드램프 디자인 변화를 통해 전체적으로 강인하고 단단해졌다.

HR-V의 최대 장점은 뛰어난 공간

활용성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뒷좌석 시트 아래 연료통을 배치하지만 HR-V는 이를 앞좌석 하단에 탑재했다. 혼다 특기기술인 센터 탱크 레이아웃과 2열 팁업 매직 폴딩시트를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운전자 용도에 따라 2열 좌석 하단을 접을 경우 1.2m의 높은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자전거나 화분, 유모차, 대형 캐리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짐을 싣을 수 있다.

주행성능은 만족스러웠다. 1.8 직렬 4기통 i-VTEC 가솔린 엔진과 무단변속기(CVT)의 조합으로 최고출력 143마력, 최대토크 17.5kg·m의 힘을 발휘한다. 저속 구간에서는 반응도 즉각적이었고 토크도 풍부지만 자유로 고속 구간에서 급가속시 조금 더디게 속도가 올라갔다.

특히 연료 효율성은 뛰어났다. 이날 시승 연비는 서울 도심과 자유로 구간의 고속 주행을 진행한 결과 16.0km/L를 기록했다. 공인 연비 11.7km/L를 크게 상회하며 우수한 연료 효율성을 자랑했다.

아쉬운 부분은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 적용된 첨단 기능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센터페시아에 탑재된 7.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후방카메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차시 부담은 덜었다. 차량 가격은 31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 中企 55개사,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뜻모아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출범  
이사장에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  
기술기반 긍정 이미지 바로잡을 것

블록체인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뭉쳐 협동조합을 꾸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건전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기업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R&D)·보안 솔루션·인큐베이터·경영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5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된 박훈희 유니콘팩토리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한국에서만 ‘암호화폐’, ‘ICO’, ‘투기’ 등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지고 있고 기술 기반의 산업화와 입법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앞줄 왼쪽부터)최성원 수퍼트리 대표, 남궁 단 체이너스 부사장, 홍상진 체인캐비닛 대표, 박시덕 후오비 대표, 박훈희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준기 컴블랜드코리아 아시아대표, 송도근 YSK미디어 고문 겸 WGS 구단주,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대표, 조미선 코드박스 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의 기존 이미지를 바로잡고 기술 전문기업들이 직접 나서 우리 실생활에 근본적으로 이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무형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조합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11명과 국내의 민간기업 관계자 30명이 모여 블록체인산업의 입법 및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출범한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를 모태로 하고 있다.

공식 출범을 계기로 조합은 ▲블록체인 산업 입법·정책 제안 ▲정부, 지자체 등 국가기관과의 협력 사업 ▲블록체인 기술 공동 연구·개발 ▲금융·공공·제조·서비스 등 분야별 공동사업 추진 ▲일반 중소기업 대상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교육 ▲블록체인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을 안착시키고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르노삼성 판매서비스 강화... 전문영업인 모집

우수 영업담당 특별 위촉  
기본 활동비 900만원 지원

르노삼성자동차는 판매 서비스 고객 만족 강화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지점 및 대리점에서 우수 영업담당 특별 위촉 기간을 갖고 모집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수 영업담당 특별 위촉 기간인 8월부터 10월 중 르노삼성자동차 지점 및 대리점에 새로 위촉된 영업담당에게는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일정 조건 충족

시 6개월 간 국내 최고 수준인 총 900만원의 기본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세일즈 입문교육부터 전문가과정까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문 영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차량 설명과 응대, 철저한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더뉴 QM6’ 출시 후 내수 판매가 전달보다 23.4% 증가하며 하반기 내수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르노삼성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전국 지점 및 대리점에서 우수 영업담당 특별 위촉 기간을 갖고 모집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

동차는 내년 상반기에도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크로스오버 SUV ‘XM3 인스파이어’ 출시가 예정돼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